

입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10년 이상의 장기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및 장기 경제지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당 사항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이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실시협약디자인이 필요하다.

셋째, 민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각 주체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실패요인들도 해소해야 한다. 사업추진 담당자 또는 의사결정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부족 문제는 꾸준한 교육과 경험 축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 구축이나 적절한 위험분담도 결과적으로는 담당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 특히,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교육훈련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성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민자사업 성공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와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

문성에 근거하여 소신 있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관청의 경직성이다. 특혜시비나 감사를 의식한 의사결정 및 인허가 지원 회피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실패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제도나 정책은 유연하면서도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도 발달해야 한다.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과 도입도 필요하다. 재정지원절차는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주무관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위험의 관리와 배분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진·태풍·전쟁 등은 물론이고 기타 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협약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